

# “고향의 정 듬뿍 안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요”

### 광천터미널·광주송정역 귀경객 인산인해 곳곳 아쉬운 이별...역귀성객들도 늘어나

“오랜만에 가족·친척과 만나 짧지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3일 동안 쌓은 추억을 밑거름 삼아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광천터미널과 광주 송정역에는 고향에서의 정을 한 아름 안고 다시 일터로 떠나는 귀경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7일 오전 9시 광주 송정역 대합실. 이별의 아쉬움을 대변하듯 이른 새벽부터 겨울비가 내리던 이날 설 명절 기간

동안 고향에서 지낸 귀경객들과 자녀를 찾은 역귀성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볐다.

귀경객들은 각자 기차가 오는 시간대를 확인하거나 책을 읽으며 고향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기차가 플랫폼에 곧 들어온다는 방송을 들은 귀경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를 타는 곳으로 이동했다. 가족과 함께 송정역을 찾은 귀경객들은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마지막까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서울행 KTX에 탑승한 아들은 행여

부모님이 걱정할까 자리에 앉아 기차가 플랫폼을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고모씨(58·여)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도 피곤했을 텐데 집안일도 돕고, 음식장만까지 함께 했다”며 “타향살이가 힘든지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이 반쪽이 돼 있어 안타까웠다. 집에서 싸간 명절 음식을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임 모씨(31)는 “오랜만에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못해 죄송하다. 올해는 자주 연락도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쁜 자녀를 위해 역 귀성한 부모도 눈에 띄었다.

조 모씨(63)는 “딸이 주말도 명절도 없이 일한다며 고향을 찾을 수 없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내가 올라가자’는 생각에 광주를 찾았다”며 “쉬는 날도 없이 근무하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스퀘어 터미널 역시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티켓 판매기 앞과 화장실, 카페 등은 긴 줄이 늘어섰고 식당 및 의자 역시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앉을 자리가 없었다.

특히, 자식들을 배웅하며 끝까지 손녀의 이름을 되새기는 노모의 모습이 코끝을 찡하게 했다.

쭈고 비까지 오는 날씨였던 이날 택

시 승강장에는 타지에서 명절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인천이 집이라는 김민정씨(45·여)는 “남편이 회사에 일이 생겨 올해는 친정으로 바로 왔다”며 “결혼 후 명절을 오롯이 친정에서 보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혼자서 아들 3명을 광주까지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지만 부모님 곁에서 꼭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제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박효민씨(28·여)는 “사회에 나와 보니 집이 더욱 그리웠다”며 “서울에서 광주까지 거리가 멀어 내려올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 언제 부모님을 뵐 수 있을지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겁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보람·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4~11	흑산도	5~8
담양	3~10	구례	3~10
화순	3~10	곡성	3~10
영광	2~9	완도	5~10
함평	3~10	강진	4~10
무안	3~9	장흥	4~10
영암	3~10	해남	3~9
진도	5~8	고흥	4~10
신안	5~9	보성	2~10

일출 07:35 일몰 17:56  
월출 09:41 월몰 21:01

목포	만조 04:01 16:41	여수	만조 11:23 23:24
	간조 09:24 21:57		간조 04:50 17:26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해남 외국인 숙소 불...3명 숨져

### 설 연휴 사건사고 열륙...음주차량 7세 아동 치어

예년에 비해 빠르게 찾아온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전남에서 화재와 뺑소니 등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설날인 지난 25일 해남 현산면의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불이 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태국인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을 통제하고 과학수사팀을 투입해 화재 현장 조사가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음날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광주 북구 양산동 모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가 7세 아동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아동은 중태로, 승용차 사고 운전자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채혈을 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식이법’에 따라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아직 검증을 마치지 않아 작동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민주가족 합동세배** 27일 오후 광주 YMCA에서 열린 ‘2020민주가족합동세배’에서 참석자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맞절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법원 “위안부 모독 교수 파면 정당”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7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김성주 고법판사·박정훈 고법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끔찍한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니 거야”라고 발언했다.

학생들을 가리켜 ‘결레’, ‘포라이’, ‘병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2017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위안부 피해자가 유족대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문맥상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역사관 및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 고의성 발언이 분명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김영민 기자

## 옛 광주교도소 발굴 유골 250구 이상 추정

### 이전 교도소서 옮겨진 유골 가능성 무게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이 당초 알려진 80여구보다 훨씬 더 많은 250여구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5·18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을 정밀 감식하기 위해 유

골을 완전한 하나의 객체(한 사람)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골 분류는 두개골이나 대퇴골 등 큰 뼈를 중심으로 먼저 구분하고 나머지 작은 뼈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초 무연고자 묘지 합장묘 1기에서

발견된 80여구의 유골은 법무부(광주교도소)가 관리하고 있던 41구와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로 추정됐다.

하지만 국과수는 해당 유골을 분류하는 작업을 70%가량 마친 상황에서 최소 250여구가 넘는 객체를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원미상의 유골이 5·18행방불명자가 아니라 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옮겨진 무연고자 유골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76명이다. 다만 수많은 유골 가운데 행방불명자의 유골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내달 6일까지 분류 작업을 모두 마치고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유골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오는 28일부터 5일 동안 인근 2,888㎡ 부지를 대상으로 추가 발굴조사를 한다.

광주시도 5·18 행방불명자 가족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직계·모계 가족을 대상으로 혈액 채취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5·18 행방불명자 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해 154가족, 334명 혈액 정보를 확보하고 전남대학교 법의학고실에 보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www.okimscom.com

## 모두가 바라보는

# 별이 되도록!

별 하나, 그리고 넓은 들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아 두셨다가, 언젠가 당신이 아프리카사막을 여행하실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이 있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쯤이면, 당신과 당신의 회사는 이미 커다란 별이 되어 있겠군요.

오컴엔커뮤니케이션이 당신과 함께 하나까요.

「오컴엔커뮤니케이션」은 광고기획 및 제작, 매체기획 및 구매, 온라인광고대행, 옥외광고, 프로모션, 마케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오컴엔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802호 T. 02)3445-3224, F. 02)3445-3216